

이 임 사



새해를 맞아 대한화학회 회원 제위께 지면을 빌어 하례 드립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된 제40대 회장의 중책을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하게 도와주신 여러 회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은 대한화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고 또 정부가 지정한 “화학의 해”였습니다. 2006년 7월 제38회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대구 영남대학교), 8월 제19회 국제 화학교육대회(서울 숙명여자대학교), 6월 제18회 국제 카이랄리티 심포지엄(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등 각종 국제회의도 개최되었습니다. 이중 국제 화학 올림피아드는 대한화학회가 역사상 개최하였던 행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67개국에서 740여 명이 참가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애쓰신 조직위원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4월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전시장에서 개최되었고(기조강연 화이트사이드교수) 10월 학술발표회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기조강연 그립스교수)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화학의 해” 행사는 일반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화학이 재미있고 유용한 학문이라는 것을 일깨우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3월 화학의 해 선포식과 화학의 해 기념 전시(서울 프레스센터)가 있었습니다. 화학이 참살이의 중심이라는 주제 하에 “화학의 해” 기념 특별전시회가 5월 서울(올림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4개 도시를 순회하였고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 “화학축전” 행사가 5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9월 서울에서 화학 속크전(서울시청 광장)이 열렸으며, 과학연극 “산소”가 3월부터 6개 도시 25회 공연을 하였고 9월 “화학공감” 전시회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개최되었습니다. 이동 화학차의 전국 순회 전시가 50회 이상 연중 진행되었고, 전국 학생 포스터그리기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주기율표의 창시자인 멘델레예프 전기(멘델레예프와 주기율표)를 출간하였고, 다양한 지부 단위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 28, 29일 화학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KBS 1TV 다큐멘터리 제작과 방송이 있었고(제1부-불로초를 향한 도전: 제2부-투명망토의 비밀) 11월 15, 22일 화학의 해 특별기획 KBS 환경스페셜이 방영되었습니다. (제1부-야생의 화학전쟁: 제2부-생명의 미래, 독종을 사수하라) 국제화학올림피아드 개최 기간 중인 7월 9일에 KBS 1을 통해 “도전 화학 골든벨”이 방영되었습니다. 12월에는 화학을 빛낸 과학자 초청 강연 “나의 화학이야기”(한양대학교)가 개최되었고, 또 크리스마스 과학강연극 “알라딘의 요술램프”(한양대학교)를 성황리에 공연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하여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 잡고, 화학이 기초 과학의 중심 분야이고 유용하고 가장 창조적인 학문이며 현대 문명의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7월부터 온라인 회원가입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회비 및 학술발표회 참가비등의 결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국 2100여개의 고등학교에 화학세계지를 무료로 배포하여 대한화학회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편집위원회 제위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불리타지의 인용지수를 제고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우리 학술지에 게재되는 학술 논문의 온라인 접근 횟수를 집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대한화학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불리타지를 포함한 학술지의 위상 제고일 것입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 단위의 학술잡지들의 위상이 위축되는 현실을 타개할 방도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초중등과학 교육 과정과 그 내용입니다. 초중등과학교육에서 '화학은 암기과목'이라는 관념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6년은 아마도 대한화학회의 역사상 가장 일이 많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낙중 총무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희생과 노력으로 대과 없이 한 해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회원 제위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화학회는 11년전 떠났던 인암동의 화학회관으로 다시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2007년 차진순 회장 이하 새로운 임원 여러분의 건투를 빌며 회원 제위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살이의 중심에 화학이 있습니다. 회원 제위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